



조건 제 814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 6월 30일)

반도체 팹 2029년 1차 완공... 2030년 6월 양산 ‘전격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공식화 했다. 전남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기업 유치와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2027년 산단 설계·인허가를 거쳐 2028년까지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어 2029년 팹 1기를 완공하고 시험생산을 거쳐 2030년 6월 첫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지원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도별 계획에는 기업 유치부터 산단 설계·인허가, 군공항 기능 재배치, 기반시설 구축, 팹 완공까지의 일정이 담겼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올해 안에 사업의 뼈대를 세우는 데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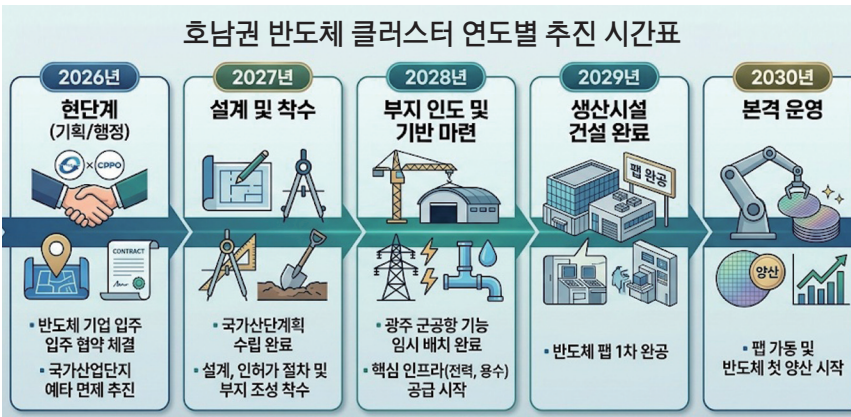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설계 관련 영역과 발주 절차에 속도를 내고 오는 10월까지 반도체 기업 입주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11~12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설계를 최대한 동시에 진행한다.

정부는 사전 조사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클러스터 연도별 실행계획

올해 기업입주 협약·에타면제...내년 산단설계·인허가
부지 일부 우선 정비...전력·용수 1년 앞당긴 2028년
군공항 기능 28년 중반까지 재배치...반도체 산단 병행



시 생성형 이미지

내년 안에 산단 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인허가와 설계 등을 병행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는 ‘패스트 트랙’ 방식이다.

부지 정비도 이와 함께 진행된다.

현재 광주 군공항으로 사용 중인 사업부지 일부를 대상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등 향후 산단 조성에 필요한 사전 공

군공항 기능 재배치 일정도 사업 로드맵에 포함됐다.

군 당국은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해 산단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부지 확보에 필요한 군사시설 재배치를 먼저 진행해 산업단지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면으로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수능기도 202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쌍촌동 무각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 전대 ‘슈퍼위크’ 돌입... 호남의 선택은

김민석·정청래, 1.48%p 쏠... 전남광주·전북 당심 주목

송영길, 고향 호남서 반전 노려...선호투표제 3위 표 관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이 분수령이 될 호남권 순회경선의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 등 당권 주자들이 텃밭 호남 민심 다지기예 사활을 걸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는 호남과 40% 가량이 몰린 서울·경기 순회경선이 사실상 전당대회의 승부처로 좁아지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구나 호남권에서도 전남광주와 전북의 표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후보들 각자 다른 전략으로 막판 피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호남권 순회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이날 시작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김민석 후보가 9만5821표(46.01%)로 가장 앞선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9만2735표(44.53%)로 바짝 추격 중이다. 송영길 후보는 1만9715표(9.47%)로, 고향인 호남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송 후보는 호남에서 상주하는 전략을 선택, 이날 조찬을 광주에서 한 뒤 고향을 찾아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

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이후에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전남광주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호남 당원들과 소통하며 호남의 민심을 살폈다.

정 후보는 광주교대에서 한국여린이 집중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뒤 광양과 여수를 찾아 당원, 시민과 만남을 가졌고, 김 후보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전북도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 판세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우위를 예상하면서도 변수로 전북의 표심을 꼽는다.

▶2면으로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시장, 대통령에 여수세계섬박람회 참석 요청

광주특별시 출범 첫 국제 행사

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섬박람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열리는 첫 국제 행사이자 섬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박람회”라며 “박람회는 대한민국이 섬과 해양의 미래를 세계에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대통령의 참석은) 석유·화학 전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 시장은 “섬은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품은 인류의 자산으

로, 이번 박람회에서 섬의 특별한 가치를 세계와 나누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의 관심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행사장 시설과 전시 준비가 끝났다. 관람객 수송과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개최까지 남은 약 20일 동안 시설물 안전, 행사 운영 전반을 다시 꼼꼼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역사적 결단에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과 경제계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육성 계획 발표 이후 일주일 만인 7월 6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확정된 것에 대해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전남광주 경제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역대급 투자를 결정해 주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부족했던 호남에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고 지역 경제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8월 10일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신속 이전을 주문하시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으로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집행력을 보여달라"고 직접 독려하신 대목에서 강력한 의지를 실감했습니다. 전남광주 경제인들은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조기 착공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가뭄 끝의 단비이자 미래를 향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호남권 반도체 팹(Fab)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대규모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 R&D 역량 강화,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등 전남광주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전남광주 경제계는 이번 결정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전방위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과 경제인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AI(인공지능) 시대의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남광주 경제계의 모든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양진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광주지회 회장 이민순
광주건축사회 회장 강필서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성후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 김현수
광주전남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 고수경
대한전문건설협회광주광역시회 회장 박병철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신명균
이노비즈협회광주전남지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임기택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본부 본부장 이동원
광주노무사회 회장 박실로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 회장 최무진 일동